

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보고(2차) 결과

□ 업무보고 개요

○ 목 적 : 운영본부, 패션문화본부 사업계획 보고

○ 장 소 : DDP살림터 3층 대표이사실

○ 참 석

- 서 울 시: 서정협 대표이사직무대행, 김정열 디자인기획팀장

- 재 단: 강문석 운영본부장, 신영희 책임, 이호섭 팀장, 노태화 팀장
김윤희 패션본부장, 유주이 팀장, 최주원 팀장
서혜영 책임

○ 진행순서(계획)

연 번	시간	내용	보고자
1	15:00~15:10	운영본부장 현황보고	강문석 본부장
2	15:10~16:30	운영팀, 시설관리팀, 전산정보팀 보고	신영희 책임, 이호섭 팀장, 노태화 팀장
3	16:30~16:40	이 동	DDP→유어스
4	16:40~17:00	유어스빌딩 시찰	-
5	17:00~17:10	패션문화본부 현황보고	김윤희 본부장
6	17:10~17:40	패션위크팀, 패션산업팀, 의류산업팀 보고	김윤희 본부장, 유주이 팀장, 최주원 팀장
7	17:40~18:00	강 평	-

□ 회의록

○ 보고시간: 15:00~17:00

○ 운영본부

- 운영본부 전략체계는 잘 만든 것 같으며 다른 본부도 전체 연간 스케줄을 챙겨서 진행하면 좋겠음.

〈운영팀〉

- DDP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무엇인지?
 - 첫 번째는 길찾기이고 두 번째는 전시·행사 콘텐츠 안내임. 일단 안내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IoT 콘텐츠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안내사인의 강화 등 서비스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음.
- DDP는 원래 길이 복잡하고 헤맬 수 있다는 것을 도리어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겠음
- Wifi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도 추가로 요청하면 좋을 것임
- DDP 임대 감정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?
 - 주변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- 디자인놀이터는 어느 본부에서 관리하는지?
 - 다른 본부 소관이며 운영팀은 상업시설 위주임
- DDP는 장애인 시설 인증 받았는지?
 - BF(Barrior Free)의 기본 인증을 받았지만 그보다도 BF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아이들 까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세계적인 수준의 DDP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. 그 시작으로 수유실 리뉴얼과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서비스의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임

〈시설관리팀〉

- 내진설계 및 지진이나 안전, 화재 사고시 매뉴얼이 잘 갖추어 있는지?
→ 잘 갖추어 있으며 연습을 실전같이 하도록 하겠음
- 노후시설의 원인은 무엇인지?
→ 사후적인 이슈가 있음
-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, CCTV 대수는 무엇인지?
→ 승강기 16대, 에스컬레이터 7대 총 24대임. CCTV는 약 350대
- 관리비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?
→ 3억 9천만원 등 5억 정도 부과됨
- 시설 용역 계약은 적격심사 후 진행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쓰는 것이 필요. 업체가 바뀌더라도 인력 승계 등으로 보완하고 있음.
- 시설 보험이 있는지?
→ 있음
- 여러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할 것.

〈전산정보팀〉

- 운영본부 내 팀은 전략체계도를 잘 짜는 것 같음
- 보안 사고 크게 난 적이 있는지? 없음.
- 아카이빙 시스템 중요한데 안 되어 있음. 고과의 시설 관리하는 실무 자산관리 시스템 필요
- 홈페이지 방문수는 어떻게 되는지? DDP는 60만, 재단 5만
- 온라인 이벤트를 왜 전산에서 하는지? 전산전문가가 사업 콘텐츠 관리도 하나? → 사업팀에서 받아서 진행함

- 외국어 홈페이지는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? 10%이하임. 잘 되어 있는지?
4개국어로 진행. 번역 전문업체 수준은 잘 관리해야함. 감수 필요!

○ 패션문화본부

- 소관부서? 문화융합경제과임
- 산자부와 문체부의 패션지원예산은 110억 정도이고 서울시의 재단을 통한 패션봉제 지원 예산은 150억 정도로 서울시 규모가 큼.
- 2020년 목표로 동대문 기동대부지 논의 중임
- 경제진흥본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전략이 필요함.

〈패션위크팀〉

- OBM이 무엇인가? Original Brand Manufacturing. 단순 OEM이 아님.
- 코드는 무엇인가? 사업관리상 들어감.
- 패션위크는 돈을 언제부터 받았나? 현 감독부터는 700~1,000만원으로 올림
- 퀄리티 어떠한지? 콘텐츠진흥원 바이어 질이 낮아서 우리에게 오는 경향이 있음
- 왜 헤라패션위크인지? 10억 정도 협찬을 받음. (연간 기업 협찬금은 15억정도임)
- 바이어는 무엇인지? 주로 구입을 하는 사람으로 완사임을 진행.
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크기 힘들.
- 글로벌마케팅 지원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는지? 평가틀이 정해져 있음.
업체의 브랜드 홍보하는 것인지? 수주실적 등을 확인하고 백화점 등을 연계함. 셀프리지 30일 팝업을 열어 진행. 완사임은 재고부담이 없음.

- K-컬처와 콜라보 시행하여 160억 정도 홍보 가치 이룸
- 정부사업 중 지원사업 겹치는 것이 많고 디자이너가 한정되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
- 해외수주 지원방식? 밀라노는 실제로 재단이 기획하고 바이어 모으는 것은 현지 회사가 진행
- 패션위크는 문화비축기지 등을 잘 활용할 예정임
- 종편과의 연계는 어떠한가? 서바이벌 패션K 같은 것을 연계하면 좋음. 지금은 홍보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정도임. 호주인가 방송에서 오디션 통해 발굴하는 유사 프로그램있음. 잘 활용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임. 이러한 매체와 함께하는 것이 좋음.
- 글로벌 해외전시 등 경제본부 투자 유치해보면 산자부, 코트라, 각각 차별화되는 것이 있음. 바이어가 같아서 난감할 때가 있음. 콘텐츠진흥원은 주로 중국이나 유럽바이어 등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우리는 고급화 전략을 씀.

〈패션산업팀〉

- 2만여개 도매상은 일반인 대상이 아님. 동대문은 도매가 85퍼센트 정도임. 국내외 비중은 어떠한지? 해외 바이어 중 55%가 중국임. 도매상권은 내수가 큼. 자체 디자이너 두고 제작하며 쇼를 하기 원함. 바이어 초청도 하고 5층 시설 활용하면 좋겠음. 바이어 유입 고려할 것
- 동대문 상가연합은 통일되어 있는지? 안 됨. 시장별로 형성
- 산통부는 명예 위주로 혜택을 준다면 서울시는 스튜디오 지원 등실질적 지원 진행하고 패션 잡지 등으로 홍보 특화하고 있음.

〈의류산업팀〉

- '13년 3월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됨

- 광진은 어찌할지? 이월금 검토하는 중. 일단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.
- 봉제자격은 무엇이 있는지? 소잉마스터, 양장기능사 등이 국가자격증임.
- 지원은 만39세 청년 제한함. 수요가 있는 나이는 젊은 층이 관심이 있는지? 5-60세는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지 않음.
- 패션관련 전공자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음
- 전체적인 사업 트리를 그려봐야 함.
 - 패션·봉제 다른 성격의 사업을 같이해야 함. 학생 교육부터 취업 단계별 공공에서 지원. 공간 지원, 전시, 마케팅 발판으로 진행됨.
 - 동대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또 다른 것 같음. 상권과 DDP 연결하는 것임.
 - 봉제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.